



청주복지재단이 2015년부터 시작한 '농촌복지시설 다기능화 지원 사업' 3년 사업을 올해 마무리 짓고 8월 28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충북 고용거버넌스 '일자리 72포럼' 세미나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충북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

충북도는 7일 청주S컨벤션에서 도내 일자리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명과 함께 지역의 일자리정책 방향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고용시장에 대한 우리도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충북연구원 김진덕 수석연구위원,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혜진 고용전문관이 발표자로 나서고, 이어진 토론에는 일자리 72포럼 위원장 윤창훈 충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홍익희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김동호 충북ICT산업협회장, 이양규 서원대 인재개발처장, 노대우 한국능률협회 연구원, 이흥래 중앙년일자리희망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역대 최악의 고용위기 속에서도 충북은 고용률 70.2%(전

국 3위), 실업률 2.5%(전국 3.7%)로 우수한 고용지표를 보이고 있으나, 악화되는 고용환경과 급변하는 고용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충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진덕 수석연구위원은 성장 중심의 투자와 일자리 중심의 투자를 분리한 선택과 집중의 노력을 강조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재구조화, 새로운 고용형태 및 환경을 위한 충북형 노동 시스템 구축, 대학·미래 지역산업 연계한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등 충북의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혜진 고용전문관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과 이와 연계한 지역고용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타 시도의 일자리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 기반 닦았다

### 청주복지재단 농촌복지시설 다기능화 지원사업 마무리

청주복지재단이 '농촌복지시설 다기능화 지원 사업' 3년 사업을 마무리 짓고 8월 28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사업에 참여한 5개 지원단과 10개 사업단 컨소시엄 관계자,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해 지난 3년의 사업추진 과정과 변화과정,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사업단으로 참여했던 그린실버촌(미원면), 다온빌(북이면), 성보나의집(가덕면), 수정노인의집(내수읍), 청목아카데미(옥산면), 청주경노인복지관(화계동·문암동), 청주상당노인복지관 미원들봄의집(미원면), 행복의집(연

도면), 형통원(내수읍), 휴먼케어(오창읍)에는 인증패가 전달됐다. '농촌복지시설 다기능화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의 복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주복지재단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2015년 9월 시작했다. 농촌지역 노인요양시설·장애인생활시설 등에 교육목적사업 외에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등 소복지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10개 기관·시설이 사업에 동참했고 청주시·학계·민간 전문가로 지원단

을 구성해 사업추진을 도왔다. 1차년(2015. 9.~2016. 8.)에는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이후 2차년(2016. 9.~2017. 8.)에는 복지요구에 따른 복지관 기능 적용, 3차년(2017. 9.~2018. 8.)에는 마을 소복지관 기능을 정착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3년 동안 각 사업단마다 건강중진 프로그램·여가프로그램·저소득 반찬지원·사례관리·이미용지원·나눔잔치·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900여회 제공했으며 1만6000여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았다. 특히 사업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동참이 이어졌고 마을마다 자발적 복지공동체의 형태가 갖춰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준환 충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농촌복지시설 다기능화 지원사업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자생적으로 시작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겠다는 자조력 향상에 기초해서 풀어나갔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며 "사업을 통해 장애인시설 등 기피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 지역주민의 복지접근성 향상, 지역내 복지인프라 기능 향상 등의 질적 성과가 있었다"고 총평했다. 이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복지시설 다기능화 지원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수 적은 희망 종이 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1회 충북재가노인복지대회 개최 성황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는 8월 29일 청주아트홀에서 1회 충북재가노인복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충북도 도회의회장, 청주시장을 비롯한 충북도내 사회복지 유관기관과 재가노

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19개 회원기관의 시설종사자 및 부양가족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독거어르신 및 재가어르신, 자원봉사자 1000명이 참여해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스펙 쌓는 충북청년 기(氣)-업(UP) 프로젝트

### 미취업 청년 대상 취업역량 강화 지원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충북청년 기(氣)-업(UP)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결과 50명 선발에 130명이 신청, 2.6:1의 경쟁률을 보여 청년들의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충북청년 기(氣)-업(UP) 프로젝트'는 일할 의욕이 높은 도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지역기업 현장 일

경험 등을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21일에는 충북대학교 개인문화관에서 채용 페스티벌을 개최, 도내 중소기업 30개소, 청년구직자 150여명이 참가하여 구인 구직 만남의 장을 갖고 현장면접 등을 실시하여 50명의 참여자를 선발했다. 선발된 참여자는 9월부터 지역기업에서 일 경험(주 25시간 이내, 탄력근무)을 시작하고, 사무보조, 조리 및 연회, 제품개발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 경험을 쌓는다.

## 3회 음성복지포럼 성료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3회 '음성복지포럼'이 5일 음성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내 사회복지조직 간 협력 가운데 사회복지협의회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교총대 김창기 교수가 좌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주일 단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우암시니어 김현숙 관장,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손영희 사무국장, 음성군노인복지관 임종훈 관장, 극동대학교 박보영 교수가 참석하여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협의회 역할 방안'에 대한 토론을 전개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주일 단장

은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협의회 역할에 협의회는 각종 사회복지관·단체·시설 및 그 연합회가 관여하는 복지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기능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안병호 회장은 "이번 포럼은 최근 사회의 양극화 심화, 저출산 및 고령시대 도래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복지 전달체계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에 민간 차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복지 공동체를 구축하고 전달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되어 음성군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병목 음성군수는 "과거의 관 주도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가 민과 관의 매개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

2018. 10. 12(금) 11시 (음성 인삼축제 기간 중 진행)

음성군 금왕읍 응천서길 25

주 관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SSN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후 원 충청북도 음성군



# 소외된 치매 노인들 위해 옥천 '방문형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사각지대 '제로'... 청성·청산 노인 직접 방문

충북 옥천군이 치매관리에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청성·청산지역 주민을 위해 '방문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노인들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돕는다.

6일 옥천군보건소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7000만 원을 들여 청성·청산 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등지의 쉼터공간을 활용해 '하

아가는 방문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다.

이 지역은 옥천읍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와 30km가량 떨어져 있어 전문적인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특히 옥천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27.0%(5만1723명 중 1만3954명)이지만, 청성

면은 47.8%(2289명 중 1093명), 청산은 42.2%(3174명 중 1340명)에 이른다.

반면, 치매등록 환자 수는 전체 950명(65세 이상 노인의 58.8%)이지만, 청성은 5.1%(48명), 청산은 6.3%(60명)로 매우 낮다.

노인 비율에 비해 치매등록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치매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노인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문형 치매안심센터 운영 배경이다.

군 보건소는 지난달 6일 치매안심센터 운영 점검을 위해 옥천읍 방문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방문형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월면 치매안심마을을 시범 운영, 인지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와 효과성을 확인한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비 5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정신건강 시책 효과 '톡톡'... 옥천보건소 '복지부장관 표창'

## 자살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군민 우울감 도내 '최저'

옥천군보건소가 전국 지자체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자살예방관리사업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0일 열린 2018년 자살예방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우선 선정한 전국 41개 보건소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보건정책 등을 엄격하게 심사한 것으로, 전국에서는 총 12개 보건소가 수상했다.

2014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옥천군민의 우울감 경험률은 12.6%로 전국(6.5%)과 충북 평균(9.0%)보다 월등히 높고, 세월호 참사로 슬픔

에 잠겨있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15%)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군 보건소는 군민의 우울감 해소, 다양한 시책과 프로그램을 도입,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군민의 우울감 경험률이 3.5%(전국 6.3, 충북 6.1)로 도내에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며 눈부신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2015년에 군비 1천500만 원을 들여 우울증 환자 24명에게 우울증약제 비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5천 만 원의 사업비로 323명까지 늘



옥천군 보건소가 자살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김재중(오른쪽 두번째)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고 있다.

려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울감 개선을 위해 생애주기별 고위험군 조기발견 검사 2천 717건과 고위험군 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129회에

걸쳐 290명에게 제공 중이다.

2012년도 개소한 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보건전문가 등 9명이 만성정신질환자 386명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 영동 사회복지사들 한 자리에... "지역복지 최선 다합시다"

## 사회복지의 날 기념·어울 한마당... 유공자들 표창

영동군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4일 용두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 '11회 영동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종사자 어울 한마당'이 성료됐다.

영동군사회복지사회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관내 사회복지사 및 시설 종사자, 지역주민 등 200

여명이 한데 어우러져 화합을 다졌다.

이날 1부에서는 사회복지 일선에서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에 대한 군수 표창과 공로자에 대한 협회장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군수 표창은 오미희(유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홍옥(청소년상남복지센터장), 박은실(영동군청 생활지원과)에게, 공로패는 박요환(영동군사회복지시설연합회장), 정우진(충북 농어인협회 영동군지회장), 양순임(레인보우영동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에게 각각 수여됐다.

이어 2부는 사회복지종사자들

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한 어울 한마당에서는 신백수 컴퍼니 대표가 진행하는 다함께 웃고 즐기는 레크레이션, 베스트드레서 선발전, 다함께 생일롤, 캔들 세레머니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축하와 화합의 분위기속에서 특별한 가을밤의 낭만과 정취를 한껏 즐겼다.

영동군은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 올해 4월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한 바 있다.

군은 모든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 영동군,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소화기 지원'

영동군이 앞서가는 재난예방 대책으로 군민의 안전과 행복 보장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화재 등 각종 안전사

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재난취약가구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군의 조치다.

군 자체예산 4천 5백만원을 확보하고, 관내 재난취약가구 약 900가구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를 각 1개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영동군에 주소가 두며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정, 65세 이상 노인인로만 구성된 세대 등이다.

영동군은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 올해 4월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한 바 있다.

군은 모든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 증평 이주여성들 "배움 통해 삶의 질 올라갔어요"

## 이주여성들 검정고시 합격 "인정적 정착 계기 되길"



제 2차 검정자격 시험에 합격한 수강생 9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증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연제일)는 8월 30일 센터교육실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력취득을 지원하는 검정고시반 초등과정 프로그램 수료식을 했다. 지난 4월부터 실시된 검정고시반 프로그램은 언어 장벽과 낮은 학력으로 인해 자녀교육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이번 과정 수강생 중 11명은 지난 8일 실시된 제2차 검정자

격 시험에 응시해, 9명이 전체 합격했다.

센터 관계자는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력 신장은 물론 삶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안정적

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센터는 2015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초·중·고등교육과정의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 보은, 민·관 손잡고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업그레이드'

## 노인·장애인복지관·농업경영인 청년회 업무협약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보은군연합회 청년회가 10일 보은군 복지서비스 활성과 업무협약을 실시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의 노인·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행을 위

한 인적, 물적 자원 등의 상호교류협력력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도모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노인·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서비스 수행에 대한 대외적 홍보활동, 농작물 후원체제 마련 등의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 박미선은 "지역의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말했으며 이어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보은군연합회 청년회 이병준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불심양면으로 봉사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 아이 키우기 좋은 진천... 산후회복·양육 지원

## 건강관리사 파견...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진천군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까지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 출산가정 및 다자녀 출산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은 3인 가구(태아포함)기준 건강보험 가입유형 직장가입자의 경우 115,568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129,883원 이하 가정이다.

사회적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화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세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와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이 해당되고, 다자녀 출산가정으로는 셋째 이상 출산가정이 해당되며 이

들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완료 되어야 하며 출산순위 및 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지원 되고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예외지원 자격 증명서류와 신분증, 출산 및 출산예정일 증명서 등을 갖춰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 '함께하는 이웃사랑 실천'... 괴산군 사회복지시설 방문

충북 괴산군(군수 이차영)이 민속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우선 이차영 군수는 14일 청안면에 소재한 정성노인전문요양원 및 부흥실버요양원에 이어 청천면에 위치한 충북실버요양원과 청천제일원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입

소자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물티슈, 세제, 휴지 등 생필품 위주의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사랑을 나눴다.

또한 이 군수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들을 만나 일일이 추석명절 안부인사를 전했다.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등을 두루 살피며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상 애로점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군수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이 꼭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괴산군은 20일까지 각 부서별로 결연을 맺고 있는 관내 13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명절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 X 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 X 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20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최희연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 '치매·중풍 극복 실현 위한 화합의 하모니!'

충북노인종합복지관서  
7일 '실버합창제' 열어  
어르신 건강한 삶 응원  
치매 극복·화합의 자리



충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준환)은 7일 치매·중풍 극복을 위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제4회 충청북도 치매·중풍극복 실버합창제'를 청주아트홀에서 성황리에 종료하였다.

금년 4회째 개최된 이번 행사는 충청북도청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이 각각 주최·주관하여 참가팀 400여명, 내빈 및 도민들을 포함하여 750여명이 함께하였다.

이번 행사는 특히 순위와 경쟁을 떠나 모두가 즐겁고 신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는 점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또한 특별테마공연 '치매타파맨스'를 충북노인종합복지관 실버치어리딩 어르신들과 학생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선보임으로써 한층 더 행사를 흥미롭게 이끌 수 있도록 일조하였다. 본 행사는 합창부문에 총 11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그 중 9팀은 시군구 노인복지관 소속으로 출전하였고, 2팀은 각각 증평군청과 청주흥덕문화의 집 소속으로 새롭게 이번 행사에



충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준환)은 7일 치매·중풍 극복을 위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제4회 충청북도 치매·중풍극복 실버합창제'를 청주아트홀에서 성황리에 종료하였다.

얼굴을 비추었다.

시상은 본상 6개 부문에 각각 청주상당노인복지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이 감동상,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제천명락노인종합복지관이 표창상, 청주흥덕문화의 집, 진천군노인복지관이 화합상, 증평군청, 청주가경노인복지관 화합상, 영동

군노인복지관, 단양노인복지관이 예술상, 충북노인종합복지관이 인기상을 수상하여 트로피와 시상금이 전달되었다.

또한 특별상으로는 각각 청주가경노인복지관과 영동군노인복지관이 응원상을, 청주흥덕문화의 집 백합합창단이 대상

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부대행사로써는 충북광역치매센터와 서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충북급연지원센터가 함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식개선 설문조사와, 치매관련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실버합창제가 더욱 다채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조하였다.

# 충북아동복지협회, 전국 꿈나무체육대회 제패

탁구 초등부 우승·배드민턴 초등부 준우승 등 '쾌거'

충북아동복지협회(회장 이정순) 꿈나무선수단은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일간 고창군립체육관, 고창생원체육경기장에서 열린 '제20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체육대회'에 참가해 탁구 초등부선수단이 우승을 하였으며, 배드민턴 초등부선수단 준우승, 중등부 3위를 하였다.

또한, 축구 중등부 선수단은 8강 진출의 쾌거를 올렸다. 이번 '제20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체육대회'는 전국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체력증진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체육 꿈나무의 조기 발견 및 육성을 위해 한국아

동복지협회 주최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대회는 축구 24개팀(초등 11개팀, 중등 13개팀)과 여자 배드민턴 20개팀(초등 9팀, 중등 11팀), 여자 탁구 9개팀(초등 4개팀, 중등 5개팀)이 리그 형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충북아동복지협회 이정순 회장은 "첫 출전한 탁구 종목에서 초등부 우승을 하였으며 배드민턴 종목에서도 초등부 준우승, 중등부 3위라는 쾌거를 안겨준 우리 충북의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러우며, 비록 결승에 오르지 못했으나 8강 진출이라는 멋진 모습을 보여준 우리 축구 선수들 역시 최

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꾸준히 훈련에 임하고 노력하여 멋진 성적을 거둔 충북 선수단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라며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격려했다.

선수들 또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더 기량을 갈고 닦아 더 좋은 성적을 올리겠다고 결의를 다짐했다.

한편 본 대회 출전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아동들의 체력증진 및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아동복지지원회, 신성축구교실 등에서 아동들이 맘껏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 충북다문화가족지원 관계기관 합동연수 개최

지원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효율적 지원 운영 방안 모색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2018년 충북다문화가족지원 관계기관 합동연수'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실무자,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일가정양립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주제로 대전 여성정치지네트워크 임정규 대표의 특강을 시작으로, 이틀간 진행된 연수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내 다문화지원 유관기관 및 센터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사업을 모색할 수 있었다. 또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 및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가족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되었다.

충청북도는 이번연수를 통해 도내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 기관이 함께 소통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해 나감으로써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계 충북 실현을 통해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8 충청북도 자활기업 창업 준비과정 실시

자활사업단 창업진단·마케팅 전략·운영 자립도 향상 등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센터장 정을동)와 한국자활연수원(원장 이시우)이 5일부터 6일까지 한국자활연수원(충주시 안림동)에서 충북지역 자활종사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기업 창업 준비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자활기업의 기초 과정을 이해하고 자활기업 창업을 미리 준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활기업 창업교육의 기초과정으로 창업 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사전교육으로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와 한국자활연수원의

협의를 통해 공동기획하고 운영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였다. 안정적인 자활기업 출범을 위한 자활사업단(사회서비스형·시장지입형)의 참여주민과 담당 실무자가 주 참여대상이며, 자활기업 창업 경로의 이해를 돕는다. 교육내용으로는 한국상생유통협동조합의 오승주 대표 '자활사

업단 창업진단과 전략, 마케팅 전략, 한국자활기업협회 박기홍 사무국장 '운영자립도 향상 전략과 모의창업'으로 진행되었다. 자활사업단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 수익성을 진단한 후 운영자립도 향상 방법을 파악하고, 모의창업을 통해 구성원간의 역할분장 및 창업 필수 준비항목을 정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충북자활기업은 현재 55개소(사회적기업 포함)이며, 충북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끌고 있다.

# 서청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식 열렸다

7월 공모서 유스투게더 선정... 양질의 서비스 기대

청주시가 8월 30일 서청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서청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주시·청원군 통합으로 청원군센터의 명칭을 변경해 그동안

안 청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 시설로, 상담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사)유스투게더가 선정돼 앞으로 3년간 위탁업무를 맡는다.

서청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주시 흥덕구 소재 청소년수련관 3층 403.3㎡ 면적에 사무실, 상담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친친뮤직밴드실 등을 갖췄으며, 운영자 소장 등 직원 13여명이 상시 근무한다. 센터는 앞으로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과 동반

자 운영 업무, 1388상담전화 운영 등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탁기관 공모로 서청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새롭게 개소하게 됐다"며 "센터 개소를 계기로 청소년 상담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자원과 적극적인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소년들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소년 진로토크콘서트 '꿈꾸는 아카데미' 성황

'공부의 신' 강성태 특강 등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성희)에서는 15일 충청북도 진로교육원에서 월드비전 꿈꾸는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월드비전은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찾아 도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꿈꾸는 아이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꿈꾸는 아이들'은 꿈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꿈 디자인' 그리고 정한 꿈을 이루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꿈 날개클럽'으로 나뉜다.

1부 특강은 '공부의 신 강성태'가 꿈을 이루는 단 하나의 습관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꿈꾸는 아카데미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어 2부 특강은 '웹툰작가 양경수(잡다한 컷 연재) 현실에 최선을 다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3부는 토크콘서트로 '꿈꾸는 아카데미 특유의'가 진행되었다.

정석문 아나운서(SBS방송국), 김태운 선임연구원(한국과학창의재단), 김미란 강사(주)심표와 느낌표 대표이사) 총 다섯 명의 멘토가 청소년들과 만나 꿈과 진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 조언을 해주었다.

중, 고등학생 청소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꿈꾸는 아카데미'는 자신에 대해 끊임 없이 탐구하면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시원한 사이드 같은 시간이었다.

이후로도 매년 멘토들과 다양한 주제로 청소년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월드비전 꿈꾸는 아카데미, 앞으로 청소년들의 미래 희망에 대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 이제 봉사도 저축하시고 이자로 돌봄 받으세요!

봉사분야 : 어르신 말벗, 상담, 가사지원, 주거환경개선

학교법인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 043 265 5305 (청주)

사단법인 충청지역복지개발회 ☎ 043 653 5025 (제천)





칼럼 Column



나동식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사의 자세

그만두었다.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은 다른 직업에 몰두하다가 번복하여 사회복지학과에 다시 재입학했다.
이렇듯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는 일부 학생들은 사회복지사가 앞으로 전망 있는 직업이고 특히 미래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직업군의 한 가지로 각광받는다

며 진술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대상자가 언급하는 의견에 대하여 항상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고 진지하고 솔직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몸과 마음이 일치된 조건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화로운 관계로 염두에 두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인하여 등장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직업군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요구하는 직업은 감소되고 상용하여 새로운 직업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사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말하고 있다.

고독사에 사회적 돌봄 필요할 때



박종분
산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최근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와 함께 단절과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역시 독거 중·장년의 특성인 경제적 어려움과 심장병, 당뇨, 알콜 의존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설 자리를 잃은 독거 중·장년이 제대로 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평균수명을 훨씬 앞질러 쓸쓸한 죽음을 맞은 이야기를 접할 때 마다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단면을 보는 듯하여 쓸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현장의 목소리



문호선
충북 청원지역자활센터 실장

지역자활센터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알지 못했다. 그렇게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한지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건 복지인가 고용인가이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은 대부분 다양한 업종(제조, 가공, 서비스 등)에 일을 경험하고 동시에 창업을 도모하고 새로운 업종의 창업아이템을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취·창업)전문가로서도 일해야 한다.

해진 새벽시간대의 참여주인이 무단결근을 하였고 못하겠다고 하여 그 부담을 종사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자활센터 직원들은 대부분 종사자의 상황이 안다까우면서 참여주인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
자활근로참여주인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해 있는 사람들이기에 근로를 시킨다는 거 자체에 대한 동기부여도 쉽지 않으며 고용이 아닌 복지라는 테두리 안에서 참여주인을 통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은산출현동조합'자활기업으로 창업하였다. 참여주민들이 성실히 근로하며 교육과 컨설팅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신뢰하였기에 이뤄낸 결과인 것이다.
자활근로사업단 담당 종사자로서 아픔을 이겨내고 현재를 인정하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의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많은 참여주민들을 격려하며 지지한다.
또한 그 모습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보람을 찾기도 한다. 우리센터의 사명은 '존중과 신뢰로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이 희망을 품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행복해지는'이다.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 참여주민을 교육시키고 근로를 통하여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자활은 '자기 힘으로 살아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대부분의 주변사람들과 대화하면 중 자활센터에 근무한다고 하면 "재활센터에서 근무한다고? 거기서도 복지관련 일을 해?"라고 자활이라고 듣기보다는 재활이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또한 재활은 아는데 "자활은 뭐지?" 하며 사회복지를 배우기전까지는

어느날은 농사꾼이 되고, 어느날은 바리스타가, 어느날은 회계사가, 어느날은 복지가 되어 있다. 내가 겪는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전문성이 있다고 느끼기도 어렵고 내가 한 일이 맞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날이 많았다.
사회복지사로서 다양한 업종의 일을 경험해보는 것은 행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업종을 배우고 경험하며 짧은 시간안에 성과(취·창업)를 내야 한다는 것은 종사자에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근래 우리센터의 일은 아니지만 다른 자활센터 직원이 새벽에 출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유는 자활근로사업단 중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정

물론 위 사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새벽근무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은 과연 탈없이 성실히 근무할까라고 종사자는 여전히 부담감을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도움을 주기도 하며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 하고 취업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자활근로 사업을 창업으로 이끌어 가는 경우도 있다.
우리센터는 올해 8월 웰빙반찬로컬푸드사업단(산찬, 뷔페, 도시락)이 맛을담

기고를 받습니다.
● 사회복지 기고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활동하길 원하시는 분은 전화(☎ 043-234-0840~2) 또는 이메일(cpcsw@chol.com)로 문의 바랍니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료 법률 상담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안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전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원명안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간: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화: 043)238-0843 / 이메일: wma7259@naver.com
사무실: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상담터

### 이달의 법률상식



원명안 변호사

Q. 저는 어느 날 친구에게 빌린 대여금 2천만원을 친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친구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잘못 송금한 경우 수취인에 대해서만

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에 빠른 연락을 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사람의 계좌로 들어간 돈은 잘못 입금된 돈이라고 할지라도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즉, 은행은 중개 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 착오 송금을 받은 수취인에게 자금을 돌려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수취인이 은행의 요청에 따라 반환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임의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취인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잘못 보낸 계좌가 입력 중이거나, 사망한 사람의 계좌인 경우 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거나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따라서 만약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를 문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 지역사회봉사단

####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우렁각시봉사단 "사랑 듬뿍 간식 나누요"

##### 독거어르신 간식 만들기 봉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우렁각시(단장 조경옥)는 지난 8월 23일 청주시량나눔 기초푸드뱅크 사무실에서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영양간식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우렁각시 봉사단은 2017년부터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우렁각시 조경옥 단장은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재능으로 독거노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싶었으며, 앞으로도 봉사에 열심히

임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위촉 관련 문의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pcwss@chol.com)을 통해 가능하다.

### 복지정보 제공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제19회 충북사회복지대회

- 일시 : 2018년 10월 12일(금) 11:00 ~ 16:00
- 장소 : 음성인삼축제장(음성군 금왕읍 응천서길 25)
- 내용 : 유공자초상, 윤리선언낭독, 퍼포먼스, 홍보부스운영 등
- 주관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 후원 : 충청북도, 음성군

#### [아이들과미래재단] 2018년 하반기 CJ도너스캠프 프사 인성학교 참가자 모집

- 일정 : 2018년 11월 15일(목)~17일(토), 2박3일
- 장소 : 현대블룸비스타(경기도 양평군)
- 대상 : CJ도너스캠프 기관회원(정회원/준회원)
- 인원 : 250명
- 신청기간 : 2018년 8월 30일(목)~9월 30일(일)
- 신청방법 : CJ도너스캠프 지원프로그램
- 신청발표 : 2018년 10월 11일(목)
- 참고 : http://www.kidsfuture.or.kr

#### [푸르메재단] 2018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6차)

- 지원기간 : 2018년 11월 ~ 2019년 8월 (10개월)
- 신청기간 : 2018년 9월 17일(월) ~ 10월 19일(금) / 이메일 접수
- 지원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청소년
- 지원내용 : 1. 지원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2.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 3. 지원기간 : 최대 10개월
- 4. 지원인원 : 35명 (신규 25명, 연속 10명) \* 연속지원 대상: 2017년 한가급 윤나눔재단 재활치료비 지원 어린이
- 신청 방법 : 1. 사례관리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2. 사례관리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 3.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신

혜정 선임간사(02-6395-7010 / shjo0923@purme.org)  
■ 참고 : http://purme.org/archives/business/32268

#### [KT&G복지재단] 청각장애인 후원사업 수리소리마소리

- 신청대상 :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수급, 차상위, 일반저소득) 청각장애인
- 지원내용 : 청각장애인에 필요한 후원물품
- 지원절차 : 1. 후원금 신청 및 서류접수 : 2018년 9월 11일(화)~ 10월 14일(일)
- 2. 심사 및 선정 : 2018년 10월 16일(화)~ 10월 23일(화)
- 3. 선정발표 : 2018년 10월 24일(수)
- 4. 후원금지출 : 청각장애인 후원물품 구입비 지원
- 5. 후원금 사용내역확인 : 결과보고서류 발송(1개월 이내) 인터뷰 진행(6개월 이후)
- 관련 서류접수 :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팩스(02-6007-1459)송부
- 1. 저소득 증명서류
- 2.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3. 의사조견서 또는 진단서
- 4. 보장구 처방전 및 견적서
- 5. 청력검사결과 자료
- 6. 주민등록등본
- 7. 기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8. 기관 후원금 통장사본
- 9. 재단 양식 정보공개동의서
- 지원금액 : -보청기, 인공와우 소모품 등 후원물품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 지난 후원내용은 수리소리마소리 홈페이지 나눔의 열매 페이지 참고
- 참고 : http://www.ktngwelfare.org

#### [아동자립지원단] 2018 '나의 꿈을 찾는 숲 속 힐링교실' 참가자 모집안내(10월)

- 대상 : 전국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아동 등 총 200명
- 지원내용 : 1. 2박3일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
- 2. 자립준비 프로그램 제공
- 3. 참가비 정액 무료(25만원 상당)
- 4. 40인 이상의 경우 45인승 버스 배차 가능
- 5. 여행자보험 가입(참가 확정 기관에 추

- 후발도 안내)
- 신청방법 및 절차 : 1.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신청
- 2. 모집기간 : 2018년 9월 10일(월) 09:00 부터 \* 선착순 모집 마감
- 3. 힐링교실 참가 대상자 확정 후 각 기관에 개별 통보
- 지원신청서 유의사항 : 1. 각 회차별 150명 미만 접수 시 일정 변동 및 취소될 수 있음
- 2. 각 기관별 최소 5명 이상 시 신청가능 (여행자보험가입 최소 인원)
- 3. 반드시 세부안내(붙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02-2127-5910
- 참고 : https://www.kohi.or.kr

####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나 민간단체의 지원이 신속하게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 지원내용 : 일선의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개보수비 등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접수기간 : 연중 상시접수 운영
- 문의전화 : 02)3010-2563
- 참고 : http://www.asanfoundation.or.kr

#### [JS노송병원] 수술비 후원 사업

- 후원대상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2종)
- 2.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 후원내용 : 1. 치료비후원(수술비, 검사비(수술 전후 검사))
- 2. 공동 간병실 제공
- 3. 차량지원(거동불편환자)
- 4. 재활치료지원
- 접수방법 : - 팩스 또는 우편접수
- 팩스 : 032-516-9500
- 주소 : 인천시 서구 길주로 91 JS노송병원 지하1층 행정실 사회복지팀
- 선정기준 : 경제적, 의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 후 개별 통보
- 신청기간 : 연중
- 문의사항 : 070-4912-9821

## 인권

### 충청북도 인권작품 공모전

**2018. 10. 01 (월) ~ 11. 09 (금)**

**접수기간**  
2018. 10. 1(월) ~ 11. 9(금)  
※ 접수마감 : 2018. 11. 9(금) 18:00 도착분 까지

**응모자격**  
충북도내 거주자 누구나  
※ 개인 및 단체(5인 이내) 모두 응모 가능

**공모분야**  
3개 부문(문예, 포스터, 사진-UCC)  
※ 포스터, 사진-UCC는 아동·청소년부 / 일반부 구분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옹호, 만들기'  
-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인식 제고  
- 인권에 대한 관심 환기 및 인권의식 개선  
- 인권에 대한 도전 감수성 향상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

**접수방법**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wanted16@korea.net)

**수상작 발표**  
2018. 11. 28(수)  
※ 충청북도 홈페이지 게시 및 수상자 개별통지

**시상내용**  
총 4,000천원 규모, 20점 시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청 홈페이지  
www.chungbuk.go.kr 공고문 참조

도 홈페이지 ▶ 소통광장 ▶ 송학관리센터 ▶ 인권분원 ▶ 인권민선시 및 교육인(6년) 게시글

**문의** 충청북도 인권센터  
☎ 043-220-2727

### 복지/만/평

**나눔**

이창신 www.bokmani.com

음식은 서로 나누어야 제맛이고

대화도 서로 나눌 때 즐거운 법입니다.

올 추석 일방적으로 주지 않고 서로를 나누셨나요?

### 자원 봉사자 모집

- ▶ **센터 봉사**  
관리센터 : 우리동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 10.1 ~ 12.31  
전화번호 : 043-267-5835
- ▶ **장애인기정청소년학습지원사업 멘토모집**  
관리센터 : 충북장애인재활협회  
활동기간 : 10.1 ~ 12.31  
전화번호 : 043-252-9720
- ▶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 행복의집 소망노인요양원  
활동기간 : 10.1 ~ 12.31  
전화번호 : 043-260-3536
- ▶ **아동학습지도**  
관리센터 : 한빛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 10.1 ~ 12.31  
전화번호 : 043-855-1090
- ▶ **돌봄과 살림 사무봉사**  
관리센터 : 청주YWCA  
활동기간 : 10.1 ~ 12.31  
전화번호 : 043-265-3700
- ▶ **인형극 봉사**  
관리센터 : 어린이재단 청주사회복지관  
활동기간 : 10.1 ~ 12.31  
전화번호 : 043-253-4493
- ▶ **재능·전문봉사**  
관리센터 : 참좋은집  
활동기간 : 10.1 ~ 12.31  
전화번호 : 043-853-5313
- ▶ **공연봉사**  
관리센터 : 대신노인요양원  
활동기간 : 10.1 ~ 12.31  
전화번호 : 043-266-0825  
\* 자료출처 : www.vms.or.kr

####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